

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원동 화재

2005년 12월31일 오전 8시40분께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원동 3층 연구실에서 불이 나 연구실 내부 100여㎡와 실험 기자재 등을 태우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불을 처음 목격한 경비원은 “아침 근무중 화재자동탐지시설의 비상벨이 울려 확인해보니 유전자원동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대와 소방관 100여명이 진화에 나서 건물 안에 있던 연구원 1명을 구조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내역과 화재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seoky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1/02>